

■ 요약문

삶과 죽음의 번뇌

- 불교철학의 사생관(死生觀) -

정병조¹⁾

1. 머리 말
2. 죽음에 대한 불교적 견해
 - 1) 석존의 사생관
 - 2) 부파 불교의 견해
 - 3) 라마 불교의 전통
 - 4) 대승불교적 견해
3. 맺는 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멍에이다. 죽음의 불안이 가져다주는 암울한 허무의 심연(深淵) 앞에 우리는 좌절한다. 그래서 영생(永生)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생이 혼자만의 안일을 탐하는 경향이라면 그것은 비판되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종교적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한다. 오히려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동일한 수평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모든 생명이 인과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부정과 자기헌신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중생들은 '더불어 사는 존재'를 체득할 수 있다. 그 완성자를 부

1) 한국불교연구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쳐라고 말하지만, 모든 생명 속에는 이미 그 가능성이 잉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는 ‘죽음’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죽음은 형이상학(形而上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험적일 수밖에 없다. 고래로 인간이 가진 원초적 의문 중의 하나가 ‘삶과 죽음에 대한 번민’이었다. 석존 당시에도 이 문제는 중요한 철학적 이슈의 하나였으며, 또 절대적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 전통 때문에 자칫 불교는 합리적인 내세관을 갖지 못했으리라는 세간의 편견마저 있어 왔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천착해 왔다. 죽음에 대한 원만한 해석이 없을 때, 인간의 삶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죽음에 관한 사색은 교리적 관점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역사배경에 의해서 수 없이 많은 상이한 견해가 도출되었다.

불교는 관용을 표방하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적 문화특성과 정서적 환경요인에 따라 사생관(死生觀)이 다채로운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정 교리에 대한 부분적인 논구(論究)만으로 결론을 얻기에는 외연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철학적 타당성, 즉 불교적 사생관의 합리적 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교리 위에 역사적인 변용을 읽어내어 그 특질을 추출해보았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은 자력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타력적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라는 면에서는 자력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논리와 한계상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타력이다. 이 자력과 타력의 균형, 조화야말로 불교적 사생관의 키워드인 셈이다.

■ 요약문

업과 윤회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삶과 죽음의 윤리적 극복 가능성-

허 남 결²⁾

I. 머리말

II. 업과 윤회는宿命론적인가?

III. 업과 윤회는 선악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IV. 업과 윤회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V. 맺음말

- 업과 윤회사상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업과 윤회의 교설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겠는가, 아니면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것의 윤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 당장 실천할 것을 발원하겠는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행위원리로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 고민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業; karman)과 윤회(輪廻; saṃsāra)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불교를 떠올릴 정도로 이 두 개념은 불교사상을 특징짓는 핵심요소로 알려져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사상은 무엇보다도 목적지향적인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2)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내가 행한 만큼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도덕적 추론방식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업과 윤회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예컨대 업과 윤회의 형성 배경이나 윤회의 주체 논쟁, 그리고 업과 윤회의 궁극적 지향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배제하고, 업과 윤회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민한 것이다.

업은 곧바로 어떤 형태의 과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위의 속성을 규정할 어떤 잠재적인 힘 (saṃskāras)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혹은 업과 윤회는 그것의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들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점은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현대인들의 윤리적 삶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행위이론인 업과 이에 따른 직, 간접적인 과보를 뜻하는 윤회란 도덕적 사고방식은 단순명료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감동마저 있다. 우리의 현재적 삶이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다면 죽음의 문제는 이미 극복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삶의 성적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업과 윤회의 원리를 사후의 세계까지 확장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곧바로, 시급히 적용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 업과 윤회라는 사고방식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며 또한 행위의 선택과 그것이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미치는 결과도 숙연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업력, 이 역동적인 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업과 윤회에 관한 우리 불자들은 직관적 사유를 넘어 비판적 사유의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

는 마음의 여유 역시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업과 윤회가 이 시대에 던지는 윤리적 메시지를 거둬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 업과 윤회는 과거지향적인宿命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윤리성을 함축하고 있는 심심한 도덕적 에너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요약문

우란분재의 의미와 設行 역사

김 상 영³⁾

- I. 머 리 말
- II. 『우란분경』과 우란분재
 - 1. ‘우란분’의 語義
 - 2. 『우란분경』과 우란분재의 設行
- III. 고려시대의 우란분재
- IV. 조선시대의 우란분재와 백중
 - 1. 우란분재와 백중
 - 2. 조선시대 우란분재의 특성
- V. 맺 음 말

우란분재는 무려 1,500년에 가까운 設行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란분재라는 이름의 제의가 행해진 기록은 중국 梁 무제 대동 4년(538)에 처음 선보인다. 目連救母說話라든가 우란분재의 의의를 설하고 있는 한역불전으로 『우란분경』 『報恩奉盆經』 『灌臘經』 『정토우란분경』 등 4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란분재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내용의 연원과 어원적 측면에서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중국의 우란분재는 도교의 中元節과 함께 융합되면서 점차 중국인 전체가

3)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참여하고 즐기는 민속의 형태로 변화되어 우란분재와 중원절의 습합은 불교와 도교의 습합·변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중국 민속을 창출해내었다.

『우란분경』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우란분재가 처음 설행된 시기는 梁 무제 대동 4년(538)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양 무제 이전에도 우란분재 형식의 의례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齊와 梁을 거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우란분재는 특히 중국 남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듯하다. 宗懔(498-561)이 편찬한 『荊楚歲時記』 등에서 보이듯이 당시 불교인들은 공양을 올리기 위해 畚을 화려하게 꾸몄을 뿐 아니라 나무, 대나무, 밀랍, 비단 등을 이용하여 갖가지 畚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란분재가 이미 중국인들 속에서 중요한 불교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란분재 행사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도 전해졌다. 일본은 606년, 657년, 659년의 『일본서기』 기록에 의해 우란분재 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57년의 기록에서는 ‘設盂蘭盆會’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우리나라 우란분재 설행 기록은 다음의 『고려사』 기록이 가장 앞선다. 또한 『대각국사문집』에 실려 있는 「蘭盆日燒臂發願疏」와 「講蘭盆經發辭」를 통해 12세기 고려 사회에서 행해졌던 우란분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우란분재는 지배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또는 민중의례와의 습합 과정을 통해 우란분재 고유의 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해갔다. 조선초기 『세조실록』 13권에 의하면 1458년 무렵의 우란분재는 도성 안 길거리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귀족불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이것은 곧 조선초기 우란분재가 민중 중심의 제의로 변화해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우기 李植, 「國書」에서는 당시 암자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재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이 무렵 우란분재는 특히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사찰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한다. 아울러 “지금은 엄금하여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지배세력은 불교계의 우란분재를 금지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조선중기에 접어서면서 민중들의 제의로 완전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데, 『동국세시기』와 아울러 柳得恭의 「中元」에서는 우란분재가 불교의례로서의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봉행되는 盂蘭盆齋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로,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재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든 문화와 종교 현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문화와 종교 현상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 지금 한국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란분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란분재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상당 부분 일탈되고 말았다고 판단된다.